

# ‘지스타’ 개막 임박... 축제 빛낼 미공개 신작 ‘와르르’

부산 벡스코서 14~17일 나흘간 넷마블 ‘세븐나이츠’ 등 2종 공개 펠어비스 단일 최대규모부스 운영 ‘5G 게임스트리밍’ LGU+도 참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가 보름도 채 안 남았다. 11월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9에서는 내년 출시될 미공개 신작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올해 게임대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10월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게임사 3사 중 유일하게 지스타 자리를 지키는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등 미공개 신작 2종을 지스타에서 공개한다. 이와 함께 ‘A3: 스틸 얼라이브’와 ‘매직: 마나스트라이크’ 등 2종의 대형 지식재산권(IP) 게임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열린 ‘지스타 2018’에서 ‘아프리카TV BJ 열망전 시즌5’ 경기를 보기 위해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부스에 모인 관람객 모습. /카카오게임즈

최초로 선보이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게임인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이

게임은 세븐나이츠 영웅들이 사라진 이후 혼돈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사관 이야기다.

제2의 나라는 동화풍 애니메이션 감

성이 특징이다. 모험과 여정의 스토리에 카툰렌더링 방식의 3D 그래픽을 접목했다. ‘킹덤’이라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와 협력해 길드를 발전시키는 ‘소셜 시스템’이 강점이다.

넷마블관은 100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모바일 시연이 용이하도록 250여대의 시연대를 마련했다. 현장 소식은 넷마블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넥슨의 빈 자리는 펠어비스가 채운다. 펠어비스는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인 200부스로 지스타에 참가한다. 펠어비스는 액션 배틀 로얄 ‘새도우 아레나’를 비롯해 프로젝트 K, 프로젝트 V, 프로젝트 CD 신작을 선보인다.

지난해 지스타에서 새로운 연합의 브랜드를 공개한 크래프톤은 B2C 전시관에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관련, ‘배틀그라운드 헤리티지’를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게임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인 LG유플러스도 지스타에 참가할 예정이다. 해외 기업으로는 메인 스폰서인 슈퍼셀을 비롯해 구글코리아, 유튜브 등 기업이 참가한다. 슈퍼셀은 지스타 개막 전날인 13일 ‘브롤스타즈 전야제’를 열고 슈퍼셀 부스를 소개한다.

올해 최고의 게임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도 지스타의 관전 포인트다.

올해 후보로는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넥슨 ‘트라하’, 카카오게임즈의 ‘달빛조각사’, 넷마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로스트아크와 트라하가 쟁쟁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게임대상에서는 펠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이 선정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 ‘신한 따뜻한 장터’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10월3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사 결연마을과 함께하는 ‘신한 따뜻한 장터’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특산물 판매와 함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참석해 소외계층에 식생활 개선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매해 서울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왼쪽)과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정연보 회장이 후원물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10월3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사 결연마을과 함께하는 ‘신한 따뜻한 장터’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특산물 판매와 함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참석해 소외계층에 식생활 개선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매해 서울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왼쪽)과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정연보 회장이 후원물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지난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의 사내벤처인 ‘포벤처스’ 1기 12개 팀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스코, 사내벤처 ‘포벤처스’ 1기 출범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 도모

포스코가 포스코그룹의 사내벤처인 ‘포벤처스’ 1기 12개팀을 출범시켰다.

포스코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조성과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사내벤처 제도 ‘포벤처스’를 도입하고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템 공모를 실시했다. 포스코뿐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사에서 72개 아이팀을 접수했으며,

심의 단계를 거쳐 최종 12개 사내벤처팀을 선발했다.

포스코센터에서 30일 개최한 출범식에는 포스코 오규석 신성장 부문장,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주요 그룹사 임원과 사내벤처 12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선발된 사내벤처팀은 최대 1년간의 인큐베이팅을 거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창업 여부가 결정된다.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에는 사무공간과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 황각규 롯데 부회장 “위기감 갖고 미래 대비”

임직원 경영 간담회  
 쏠 계열사 비상경영 체제 전환 요청  
 외환·유동성 위기에 철저 대응 강조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그룹 내 모든 계열사에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환 및 유동성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강조했다.

롯데는 지난 30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계열사 대표이사과 주요 임원 약 150명이 참석한 경영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의 경영 환경 및 관련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이날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간담회 본 세션이 시작되기에 앞서, 참석한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각 사 모두 위기감을 갖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고 철저히 대비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황각규 부회장은 우선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황 부회장은 “투자의 적절성을 철저히 분석해 집행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해 임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외환 및 유동성 위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 잡힌 경영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황 부회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장밋빛 계획이나 회사 내외부의 환경만 의식한 보수적인 계획 수립은 지양해달라”고 지적하고, “명확하고 도전적

인 목표를 수립하고 혁신을 통해 이를 반드시 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기간별로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탄력적 경영을 해달라”고 전했다.

황 부회장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강화”도 강조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보다 근본적인 전략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거의 성공방식은 오히려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IT 및 브랜드 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 부회장은 대표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격려했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 9월 생산·소비 줄고 설비투자 늘어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108.0으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생산은 7월 2.8% 증가했다가 8월 1.8% 감소하고 지난달 다시 2.0% 늘어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히 반도체조립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 생산이 늘면서 기계장비 생산이 8.0% 증가했고, 신차출시와 맞물려 자동차 생산도 5.1%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1.2%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

2%포인트 상승한 75.6%로, 2017년 1월(76.2%) 이후 가장 높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각 2.9%, 1.8%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2% 감소했다.

9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58.7로, 전월보다 상승하며 기준치인 50을 웃돌았다.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도 55.4로, 전월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했다.

생산확산지수가 기준치를 웃돌았다는 것은 전월보다 증가한 업종의 수가 감소한 업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2.2% 줄어든 113.0으로 집계됐다. 감소 폭은 2017년 12월(-2.4%) 이후 가장 컸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8월에 음식료품을 선구매한 기저효과로 비내구

재 소매판매가 2.5% 감소했다. 연이은 태풍 등 날씨 요인으로 환절기 의류 판매가 줄면서 준내구재 판매도 3.6%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슈퍼마켓·잡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1년 전보다 각각 5.2%, 4.5% 줄었다. 백화점에서도 2.6% 판매가 감소했다. 반면 면세점은 32.9% 증가했다.

통계청은 산업생산과 소비 동반감소가 기저효과와 날씨 등 일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9% 증가했다.

2017~2018년 대규모 반도체 장비투자의 기저효과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내 기계 수주는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